



## 가족 여행을 위한 유익한 길잡이

《시와 소설을 찾아가는 여행길》 펴낸  
임동현씨

이 책의 모태. 두 개의 매체에 삼년 동안 연재했는데, '그곳에 갔을 때'는 저자의 낡은 기억을 되새김하는 방편삼아 책으로 묶으면서 새로 썼다.

임동현씨는 85년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한 소설가. 《민통선 사람들》을 비롯한 십여권의 소설책을 갖고 있다. 문체미학에 유념하면서 살 만한 세상 일기기가 임동현 소설의 핵심주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 7천부에 불과하지만 이번 책은 2만부는 무난할 거라는 주위의 예측을 전하며 씩씩하게 웃는다.

생업으로 삼던 일간신문 기자 일을 작파하고, 2년전 '임씨네편집공방'을 차렸다. 올해는 출판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생각이다. '임씨네출판회사'라는 이름으로 출판사 등록도 마쳐놓았다.

"남자 나이 마흔에 관한 장편소설을 구상중이고, 기회가 닿는대로 덜 문명화한 나라를 돌아본 다음 사진을 곁들인 여행기를 쓰고 싶다"는 임동현씨. 책 날개에 있는 그의 사진은 아버지 못지 않게 사진을 좋아하는 열 한 살난 그의 아들이 찍었다. — 최성일 기자

문학여행이나 여행기를 통해 드러나는 문학과 여행 사이의 관계를 촌수로 따지면 사촌 정도는 될 것이다. 소설가 임동현씨(41, 임씨네편집공방 대표)는 《시와 소설을 찾아가는 여행길》(아세아미디어)에서 문학과 여행을 신세대 감각에 맞게 결합하고 있다. 문학에서는 '엄숙주의'의 뻣뻣함을 조금 덜어내고, 나들이에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다 약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절묘한 절충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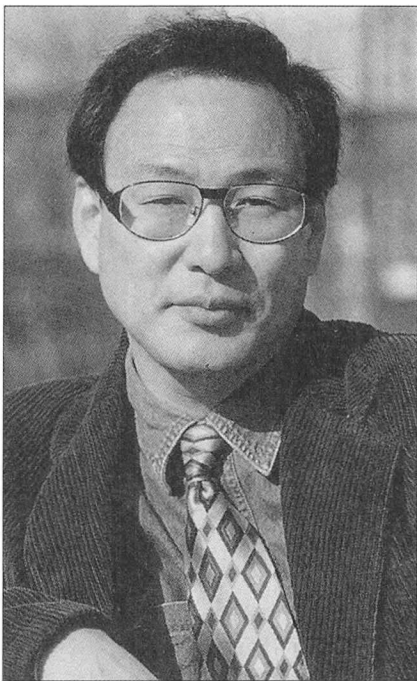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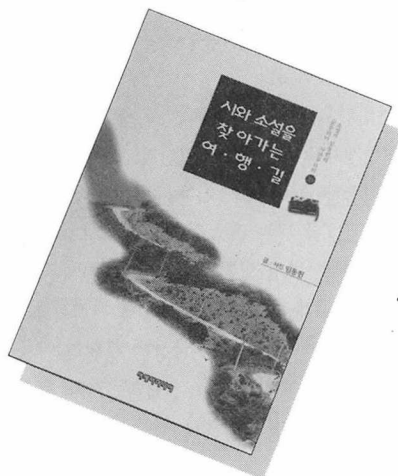
이 책은 시 스물 두편과 소설 열 한편의 창작배경이 되는 지역을 둘러본 답사기. 본문, '그곳에 갔을 때' '작가 소개' '자투리 여행정보'로 이뤄졌는데,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답사내는 수단이 다를 뿐 글과 사진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통한 이미지 구축에 의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은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담고 있다. 대체로 제목이나 내용 속에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지만, 천양희의 〈4월의 풀〉에는 '힌트'가 없다. 저자는 그 시를 읽다가 "무작정 부여로 달려간다." 그리곤 부여의 들판과 신동엽 시인의 생각을 둘러본다.

원고지 스무장 안팎의 짧은 글이지만, 저자의 비평가적 안목이 번뜩인다. 김민숙의 〈양수리 가는 길〉에서 양수리로 치환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을 이겨낼 지혜 필요함을 읽는다.

원고 분량이 짧은 것은 사보와 잡지 연재를 거쳤기 때문. 《쌍용정유》의 '시가 있는 여행'과 《삶과 꿈》의 '문학기행'이



## 한계에 도전하는 탐험의 역사

《탐험사 100장면》 펴낸 이병철씨

또 각 장면마다 붙인 최초 기록 후의 기록을 찾는 일도 쉽지 않았다. 선례가 없으니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탐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레저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도 고민했다.

"오토바이 타고 번지점프하기 같은 것은 탐험이라고 할 수 없지요. 탐험은 인간의 한계와 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100장면에 당당하게 끼워넣을 한국인의 기록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아쉽지만 하다. 하지만 현해탄을 뗏목으로 건넌 윤명철, 세 극지를 모두 정복한 허영호, 8천미터 14개봉에 도전하는 엄홍길 등 부록으로 붙인 한국 탐험가들에게 기대를 건다.

이번 책은 10년 전에 출간한 《미지에의 도전》에 새 기록을 보충하는 의미도 있다. 인류역사 끝까지 기록할 수 없겠지만 이왕 시작한 것,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새로운 기록을 덧붙일 생각이다. 외국에도 아직까지 탐험사만을 다룬 책은 없어 영어나 일어로도 번역 출판할 생각이다. 특히 기원전 6세기부터 기록한 탐험사 연표, 80여권의 참고문헌, 꼼꼼한 찾아보기는 읽는 이에게 신뢰를 준다.

— 이현주 기자

"흔히 탐험을 모험과 혼동하거나 지리적 탐험으로 한정하지만 탐험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이병철씨(48세, 《시사저널》 교열위원)는 《탐험사 100장면》에 바다·하늘·땅·극지·히말라야 등지에서 인간의 한계상황에 도전한 사람들의 기록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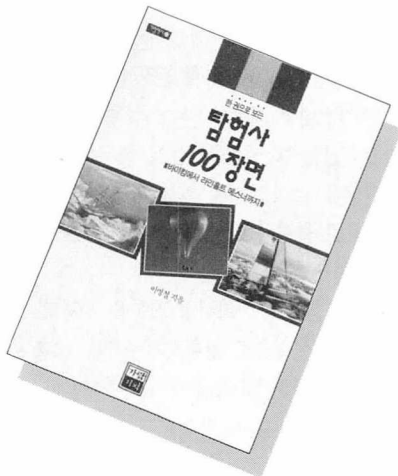
'바다' 편에는 신대륙 발견, 수영으로 영국해협을 건넌 영국여자 거트루드 에덜리, 해저 381m를 탐험한 미국의 실비아 얼 등 바다탐험 30가지를, '하늘' 편에서는 동력비행기로 36m를 난 라이트 형제, 크레타섬에서 테라섬까지 사람이 밟는 페달 힘만으로 날아간 카넬로포울로스까지 모두 24개의 진기록을 수록했다.

또 실크로드, 아마존, 사하라 등 땅 위의 가장 험난한 조건을 극복한 18가지 이야기와 북극·남극점과 히말라야를 정복한 28명의 '대단한 사람' 이야기도 들어 있다.

"자료는 150가지 정도 모았지만 100장면이라는 제약 때문에 최초기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펴낸 과정도 일종의 탐험이었다. 선례나 전지가 될 만한 탐험사책이나 연감·잡지가 없어 몇 줄짜리 해외토픽, 외국의 시사잡지, 기네스 북, 인터넷 등 온갖 자료창고를 뒤져야 했기 때문이다. 사진을 얻기 위해서 외국 특파원에게 부탁하거나 대사관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정확한 연대나 기록을 선택하는 일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도 색인과 본문에서 연도와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다.





## 소띠 해에 읽는 소에 얽힌 민속

《소가 웃을 일이다》 펴낸 장장식씨

없다. 선농단의 깃발은  
일년에 한번 먹을 수 있는 쇠고기국이 아닐  
수 없다. 쇠고기 국물에 고깃점을 넣어  
휘휘 말아먹는 설렁탕의 유래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소는 성(聖)적인 의미와 성(性)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성스러움이 있는가 하면 신라  
토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성·재생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에 얽힌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많은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이중섭의 〈소〉처럼 역동적이고 힘찬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하지요.”

장장식씨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말에서는  
‘왼쪽’이라는 말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좌천이란 말에서는 좋은 뜻이  
아니지만 ‘속되지 않음’이나 ‘일상과  
다른 특별한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거나 금줄을 만들 때는 왼  
새끼를 끈다는 것이다.

작고한 김태곤 교수에게 사사하고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그는 12간지의 민담과 민속자료를 모아  
순서대로 출간할 계획이다. 호랑이해인  
내년을 위해 관련 자료의 수집과 민속자료  
채집에 열심이다. — 마정미 기자

민속학자 장장식(40)씨는 정춘년  
초입에 소이야기로 덕담을 건넨다. 너그럽고  
굳세며 슬기롭고 의리 있는 소처럼 찬찬히  
격동의 새해를 맞이하자는 것. 소는 가족을  
열외로 하고 한집에 사는 머슴이나 가금을  
일컫는 생구(生口)의 대표이다. 경작의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무엇보다 친근한 존재다. 때문에 우리  
민속에 소에 얽힌 민담이나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

이런 이야기를 모은 책이 바로 《소가  
웃을 일이다》(고려원 미디어)이다.  
아카데미한 민속학을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개하자는 취지에서 구상했고  
소띠 해에 맞추어 출간했다.

“생산력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소의  
보편적인 상징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라마다 조금씩 그 의미가  
다릅니다.”

각 나라별로 그 기후와 지리의 특성상  
현실적인 이유에서 소의 상징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를 거의 인간의  
반열에 올려 대우했다는 것이 장장식씨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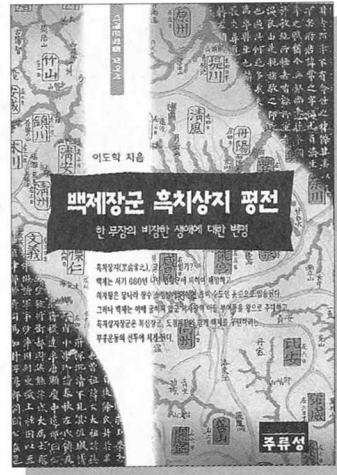
“소의 호적을 만들어 관리한다거나  
소에게 신과 웃을 해입히기도 했습니다.  
소의 도축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나라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요.”

해마다 농사를 짓기 전에 행하는  
‘선농단’ 제사는 한해 농사가 잘  
지어지도록 하늘에 제를 드리는 행사인데,  
이 제례에서는 소를 제물로 쓴다. 그런 일은  
드문 경우여서 지금도 산신제를 비롯해  
큰 굿이 아니면 소를 제물로 쓰는 법이



## “찬란한 백제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도서출판 주류성의 신간

###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 한 무장의 비장한 생애에 대한 변명



이도학 지음  
신국판, 320면, 9,000원

백제 멸망 당시 백제 부흥군의  
장군으로서 부흥운동을 주도하다가  
실패로 끝난 후 당나라의 장수가 되어  
활약했던 흑치상지의 생애가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과 함께  
파노라마처럼 엮어진다.  
조국을 망하게 한 적국의 장수가 된  
흑치상지의 곡절많은 생애와  
흑치상지만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백제장군으로서의 고뇌와 번민이  
드러나고, 용맹과 자락을 겸비한  
참군인으로 살다가 끝내 이역만리  
적국땅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았던  
흑치상지의 생애와 백제의 역사가  
장중하게 펼쳐진다.

### 인도차이나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오스카 베겔 지음, 조흥국 옮김, 신국판, 287면, 8,000원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담의 땅 인도차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중심 3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인도차이나 지침서.  
특히 인도차이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경제인들이 미리 알아야 할  
정치·경제·사회적 변혁과 변화를 분석하여 자료가 부족한 이들 나라의  
진면목을 확실히 살펴볼 수 있는 필독서이다.

#### 출판을 원하는 각종 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周留城은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의 출간을 시작으로  
역사·교양서 전문 출판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집필을 하시는 분이나, 좋은 원고나  
기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땅한 출판사를 찾지 못하신 분은 상담해  
주십시오. 성심성의를 다해 출판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도서출판 주류성

전화 567 - 1024  
팩스 553 - 0656

周留城은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패망한 백제의 부흥  
군이 최후의 항전 시령부로 삼고 싸우던 백제의  
옛 성입니다. 도서출판 주류성은 찬란한 백제 문화와  
백제정신의 복원을 위해 1,300년전 주류성에서 일어났던  
백제부흥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설립된  
백제사 전문 출판사입니다.